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신 임 순

2017년 8월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지도교수 박 여 성

신 임 순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신임순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년 8월

A storytelling of fairy-tale on the basis of Jeju Haenyos' labor-songs

Shin, Im-Soon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Song)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Education (Storytelling).

2017년 8월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iii
[Abstract]	x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내용	1
2. 선행 연구의 검토	5
II. 제주해녀 노동요의 개괄	8
1. 제주해녀 노동요의 특성	8
2. 해녀 노동요의 교육적 가치	14
III. 제주해녀 노동요의 여성상	18
1. 노동요의 사례	18
2.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 의식	29
IV.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35
1. 동화의 특징	35
2. 동화의 창작요소	36
3. 창작 동화의 실제	49
V. 결론	74

[참고문헌] 77

표 목 차

<표 1> 해녀 작업의 노래	18
<표 2> 출가의 목적	21
<표 3> 노 짓는 기백	23
<표 4>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	25
<표 5> 해녀들의 여정	27
<표 6> 동화기획 표	37
<표 7> 동화 구성인물	44
<표 8> 배경	46
<표 9> 동화 서사 구조	49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해녀축제 개막식(2013.10.12) [사진: 해녀박물관]	10
<그림 2> 관광객과 함께 하는 노래 공연(2015.4.16) [사진: 해녀박물관]	12
<그림 3> 50회 탐라문화제(2011.10.07) 해녀놀이 [사진: 정선영]	13
<그림 4> 테왁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시 삼성로 40)] ..	20
<그림 5> 노해녀의 지팡이 [사진: 해녀박물관]	22
<그림 6> 돛단배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24
<그림 7> 전초 판매 [사진: 해녀박물관]	26
<그림 8> 여정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9
<그림 9> 52회 탐라문화제(2013) [사진: 정선영]	31
<그림 10> 바다로 [사진: 해녀박물관]	33
<그림 11> 등장인물 관계도	45

[국문초록]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신 임 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박 여 성

문화콘텐츠에 원천 소재를 제공하는 문화원형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그 문화원형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인간 삶의 이야기와 정서·지식·교양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창조적 상상력은 인문학적 지식 토대 위에서 가능한 상상력이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다.

제주해녀 문화는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해녀 문화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민속·산업·신앙·풍토·기후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연되는 해녀 노동요는 해녀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세계 인식을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해녀 노동요에는 제주 해녀들의 역사와 정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현재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이 바뀌고 해녀의 수가 급속히 감소해감에 따라 노동요는 작업현장에서 분리되어 사설과 가락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녀 노동요를 물질하는 현장에서 듣기는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들이 불렀던 노동요의 가치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바다를 개척하며 불렀던 노동요를 통해 제주 해녀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로 스토리텔링 하는데 의의를 둔다.

II장에서는 제주해녀의 노동요의 특성을 개괄하고 해녀노동요의 교육적 가치와 III장에서는 제주해녀 노동요의 사례와 여성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창작으로 동화의 창작배경, 동화의 구성과 스토리를 구상하였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본 내용을 서술하였다.

동화 ‘진주의 바당’은 어린이들에게 제주해녀들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며 교육, 문화산업으로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후에 진행 될 연구에서는 해녀문화 교재활용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해녀들의 정체성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교육대상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안목으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orytelling of fairy-tale on the basis
of Jeju Haenyos' labor-songs**

Shin, Im-Soon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Song

The culture of Jeju Haenyos has been register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6. Generally, songs which people chant are inclined to describe, preserve,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life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lluminate and re-evaluat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meaning of labor-songs that have been handed down by Haenyo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is study, I will also create a children story by analyzing and reflecting the songs and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the story. The songs have been chanted for Haenyos to express and represent their hardworking pains and distresses of their life on the one hand, and to reduce and alleviate them on the other hand. So they are involved in Jeju Haenyos' social and cultural viewpoints and their perceptions of life and social environment.

For the purpose, in chapter II, I will look into the traits of Jeju Haenyos' labor-songs and their implications of education.

In chapter III, the social and cultural consciousness of Jeju's women will be

examined by way of analyzing the songs.

In chapter IV, first of all, the necessary compositional elements of fairy-tale are confirmed and looked over them. Then I design the concrete plan and contents for a creative children story reflecting the characters of the songs. After all, I write a creative fairy-tale, titled “ The sea of pearl.”

In chapter V, the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made-up story to the growing generation will be discussed and arranged.

In conclusion, geneally, the children story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new generation's understanding Jeju Haenyos' way of life and thought including their history and culture. Besides the story is able to be a good example with which Haenyos' songs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socially, culturally, and educationally for the new generations growing in Jeju in order to enhance their sense of identity and their consciousness of Jeju's history and culture.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1971년 제주해녀 노동요인 ‘해녀(海女)¹⁾노래’를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하여 1대 보유자 안도인 씨가 지정되었고, 강등자 외 김영자 씨가 2005년 무형문화재 2대 기능 보유자로 선정되어 해녀 노동요를 전승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제주해녀 문화는 2016년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제주의 민속·산업·신앙·풍토·기후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연되는 해녀 노동요는 해녀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세계 인식을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 전승되는 해녀 노동요를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온 해녀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녀 노동요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변성구, 2007: 62참조).

제주해녀들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해녀 노동요는 제주도 전역에서 해녀들에 의해 불렸다. 발동선²⁾이 생기기 전에 섬이나 육지로 출가하여 물질을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해녀 노동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노동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20여 년 전 만해도 부정적이던 노동요에 대한 인식은 세대가 바뀌면서 제주 민요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 노동요를 불러달라

1) 바닷속에 산소공급 장치 없이 들어가 해조류와 패류 캐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2484>

2) 발동선은 인력과 풍력의 힘으로 움직이던 배에 비해 체력과 힘이 덜 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도 어로가 가능하다. 발동선이 나온 이후 제주의 해녀들은 섬 바깥 멀리까지 자유롭게 물질해 나갈 수 있었다.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00827

고 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을 들어서 무엇 하겠느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일쑤였고, 제주 민요가 훌륭한 문화유산 이라는 설명에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큰 명예로 여겨지며,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 현수막을 내걸어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양영자, 2007: 178참조).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여성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바다를 개척해 온 제주도의 해녀(海女)가 제주도만의 특수한 지역성에 기반을 두어 물질³⁾을 나가면서 불렀던 노동요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해녀 노동요는 제주의 전통문화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문화원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요(漁業謠)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의 해녀 노동요는 해녀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시키고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해녀들이 노를 저으며 물질을 나가는 풍속이 사라진 지금, 오늘날의 해녀 노동요는 소수의 전승자들에 의해 노동과는 따로, 노 짓는 현상을 재현하는 노래가 불려진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이 바뀌고 해녀의 수도 급속히 감소해 감에 따라, 노동요는 작업현장에서 분리되어 그 사실과 가락만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해녀 노동요에는 제주도 방언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해녀 노동요를 물질하는 현장에서 듣기는 어렵다. 특히 제주해녀 노동요는 제주어로 부르기 때문에 노랫말을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노래를 전수 받아 명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야기 산업의 핵심인 신화·설화·민요 등의 원전을 활용해서 영화·애니메이션·게임·무대공연·동화·소설 등의 다른 매체로 재생산하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해녀는 생소한 콘텐츠 소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창작이 되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MBC에서 방영된 ‘탐나는 도다’, 뮤지컬은 ‘숨비소리’가 창작이 되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제주문화의 독창성을 담은 해녀 춤사위와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며 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3)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

있다.

따라서 본인은 제주해녀 노동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키는 목적을 위해 노동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동화로 개발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동화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말하기, 듣기 등의 국어교육 외에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동화가 적합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이정숙, 2001: 12 참조).

본 논문은 해녀들의 의식과 생활상이 깃든 노동요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강인한 여성상을 지닌 동화로 스토리텔링 하여 제주해녀들의 삶과 여성 의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제주해녀 노동요를 기반으로 한 동화를 통하여 제주해녀의 정신력과 정체성을 알리고 제주문화의 창조적 재발견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채록된 제주해녀 노동요의 사설(辭說)에 녹아 있는 해녀들의 삶 속에서 노동요의 가치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의 어촌에서 해녀 일을 이어받을 한 소녀가 해녀의 꿈을 키워가는 내용의 동화 스토리텔링으로 구상하고자 한다. 동화의 주인공을 또래의 여자아이로 설정하여 아동 독자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동화 속에 서술된 문제의식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제주해녀 노동요의 특성을 개괄하고 해녀 노동요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해녀의 노동요에는 고난과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었던 해녀들의 삶 자체에 대한 한(恨)이 서려있다. 한탄스럽고 자조적이며 체념과 구슬픈 어조를 띤 노동요이지만, 그것은 진취적이면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 노동요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주의 환경과 운명적인 시대상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원동력을 느낄 수 있다. 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해녀들이 겪어지고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구비전승물을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아동에게 읽힌다면 그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제주해녀 노동요에 묘사된 여성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바탕이 되는 텍스트로는 김영돈(2002)의 『제주도민요연구론(上)』에서 해녀 노동요 다섯 곡을 선택하였다. 이 기초 작업을 통하여 끌어내려는 것은 동화소재의 핵심으로 해녀들이 작업 하면서 불렀던 ‘해녀 작업의 노래’, 돈벌이 하러 가면서 불렀던 ‘출가의 목적’, 출가하면서 부르는 ‘출가하는 뱃길’, 출가해서 사는 동안 불렀던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 그리고 해녀들이 한가할 때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노래로 ‘해녀들의 여정’이다.

Ⅳ장에서는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의 창작으로 동화의 창작 배경과 동화의 구성과 스토리를 구상할 것이다. 동화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12세 소녀이다. 동화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설정한 것은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어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며 판타지도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와 갈등에도 흥미를 갖는 성장단계이기 때문이다(황선미, 2005: 35참조).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제주해녀 노동요가 동화 스토리텔링으로 어린이들에게 다가갔을 때의 접근성과 이해력, 그에 따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본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그 외에 문화원형을 소재로 하는 제주 민요와 설화 등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겠다.

이제 제주해녀 노동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에서 제주해녀가 지닌 가치는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해녀 노동요는 제주해녀들의 고난과 사회상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로 제주해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앞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생산하여 종합예술적인 차원에서 활용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제주해녀 노동요는 선조들로부터 구전(口傳)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해녀들의 노래이다. 해녀 노동요에 드러나는 정서는 해녀들의 노동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한 애환과 지역적인 정체성이 녹아들어 있으며, 역동적이고 직설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를 위해 속담이나 설화와는 사뭇 다른 제주해녀 노동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김영돈(2001, 2002)은 『제주도민요연구(上, 下)』에서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집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인용 자료 역시 김영돈이 직접 수집한 것에 국한했으며, 논의와 항목, 설정 등 민요 분석의 방법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돈의 연구는 제주도 해녀 노동요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처음 시도한 의의를 가진다.

양영자(2007)는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에서 제주민요에 나타난 사회·역사·문화적인 내용을 통해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 지역성 등을 살폈으며, 노동요가 제주 지역학의 한 분야로 손색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육지 민요와 차별적인 특성을 구명하여 제주 노동요의 독자성과 특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변성구(2007)는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에서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설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어 제주도의 여러 지역의 채록된 해녀 노동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설 구성 양상을 파악하고 제주해녀들의 공감대가 들어있는 사설의 기능과 내용을 고찰했다. 이러한 방법은 해녀 노동요가 어떤 노래이며 제주민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김수정(2008)의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에서는 제주도 노동요 중에서 특히 사실적인 요소에 집중하였으며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 의

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 노동요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였으며 제주도 노동요의 교육적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을 지낸 오옥만은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2009년 7월에 입법 예고하면서, 제주의 고유한 해녀문화는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없을 경우 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같은 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정해졌다. 조례 제2조(정의) 2항에 보면,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어로민속지식·신앙·노래·작업도구·옷·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었다.

이선화(2016)는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서 제주해녀가 지닌 특유의 문화 속성들을 파악하고 제주의 고유한 문화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브랜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세계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인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 이어서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사례분석으로 무대공연·방송·영화·음악·만화·출판 등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일본 아마의 사례분석도 병행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비교한 결과 김영돈(2001, 2002)은 제주해녀 노동요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양영자(2007)는 제주민요에 나타난 사회·역사·문화를 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살피고 해녀 노동요의 독자성과 특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변성구(2007)는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어 해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내용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김수정(2008)은 제주 노동요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적인 발전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 한 편 오옥만은 2007년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가 정해지면서 지금까지 가시(可視)적인 정책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선화(2016)는 제주해녀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

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를 해왔다.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각처에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힘입어 제주의 해녀문화는 세계의 인류문화유산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앞선 제주해녀 노동요 연구에는 스토리 구성 요소가 풍부히 들어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활용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관광객을 위한 해녀문화 홍보나 노동요 전수에 치중된 형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논문은 해녀 노동요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용 동화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노동요의 사설적인 가치를 알리고 선조들의 세계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Ⅱ. 제주해녀 노동요의 개괄

1. 제주해녀 노동요의 특성

좁녀, 좁수라고도 불린 해녀는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면함의 상징이다. 해녀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물때만 맞으면 사계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나가 소라·전복·성게·미역을 딴다. 이들이 거둔 해산물은 가게에 보탬이 되었다. 그들은 ‘소중이’라는 물옷에 물수건, 물적삼을 입고 빗창, 테왁이 달린 망사리 등의 도구만을 이용하여 물질을 도전하였다.

제주해녀 노동요는 현장에서의 물질 노동을 직접 표현하는 서사적 행위 속에서 의기로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녀에게 있어 바다는 마치 농부들의 밭처럼 소중한 일터이며 농부가 농요를 부르듯이 해녀들은 일터에서 테왁·망사리·빗창 등으로 장단에 맞춰 노동요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의 교류가 드물었고 자연환경 또한 척박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해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리적인 특성과 풍토성을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삶을 이끌어 나갔으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성품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생활을 해 나갔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30년간의 몽고의 통치와 잦은 왜구의 침입, 조선왕조 500년간 이어졌던 민란, 그리고 해방 후 4·3 사건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시련이 이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활 의지는 줄기쳤다.

제주도는 조선왕조 때 공물 진상과 노역 징발이 과하게 책정되었고, 왜구의 침범이 빈번함에 따라 해안 수비를 위한 군역이 부과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섬을 떠나는 일도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잦은 해난 사고, 일제 하의 일본으로의 출가, 6·25전쟁으로 인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육지로의 전출도

찾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들의 생존율이 낮았고, 그 자리를 여자들이 맡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러한 역사와 제주의 척박한 토질은 여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바다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바다를 받으로 여기는 해녀(海女)의 삶을 이어 나갔다.

제주도 해안가에는 수많은 마을이 섬 둘레에 들어서 있고, 각 마을마다 사시사철 해녀들이 작업을 한다. 해녀들이 추운 한겨울에도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던 절박한 사정이 그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바다는 해녀들의 꿈과 소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공간이었으며, 헤어날 길 없는 막막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터전이 되었다.

해녀들은 생과사를 넘나드는 바다에서 굳센 의지와 고달픈 현실을 노래를 통해 분출했다. 그러한 해녀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해녀 노동요이다.

아래의 노동요 서사에서 드러나듯이 바다는 해녀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줄 유일한 터전이다. ‘소라 다섯 섬에 전복 여든 섬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쟁기랑 잡거들랑
닷 섬만 잡게 흥곡
전복이랑 잡거들랑
요든 섬만 잡게 흡서
못 사는 우리 팔즈
흔번 아주 고쳐 보게

〈풀이〉

소라랑 잡거들랑
닷 섬만 잡게 하고

전복일랑 잡거들랑
 여든 섬만 잡게 하오
 못 사는 우리 팔자
 한번 아주 고쳐 보게4)



<그림 1> 제주해녀축제 개막식(2013.10.12) [사진: 해녀박물관]

제주도는 해양 지리학적으로 수온이 높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많은 어종이 서식하여 해녀들의 작업 환경으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물소중이⁵⁾ 하나만 입고 바다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던 사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화산섬인 까닭에 돌맹이가 많고 토질이 척박하여 땅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남자들의 노동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여자들도 일터로 나서야 했던 것이다.

4) 김영돈(2002), 제주도민요연구(上), p.216.

5) 제주에서 잠수(潛嫂)들이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노동복. ‘물[水]+소[小]+중이[袴衣]’의 복합어이다. ‘물’은 장소, ‘소’와 ‘중의’는 만듦새와 모양을 뜻한다. 즉, ‘물속에서 입는 작은 흠뻑’이 된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성향을 가진 제주 여성들은 육지부에서 남성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생계를 책임진 것과 달리, 반농반어(半農半漁)의 형태로 농사와 물질을 겸하면서 경제적인 면을 이끌어 가야 했다. 이른 새벽이면 농부처럼 밭으로 가서 농사일을 하다가 물때⁶⁾가 되면 부리나케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농사일은 물론이고 해산물 채취와 밤이면 길쌈에 이르기까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해녀들의 삶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었으나, 출가할 때나 넓은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해녀 노동요를 부르는 가운데 바다에 희망을 걸었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노동요와 힘차게 노를 젓는 동작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리듬감을 살려내고, 힘든 노동을 한결 가볍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술한 비바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센 파도를 가르며 씩씩한 기상이 아래의 노동요에 드러나 있다.

한 물거리	젓엉 가게
두 물거리	젓엉 가게
오색나비	새 날아가듯
요 네차락	벗어 지게
젓꼭 젓엉	흔저 가게

<풀이>

한 물거리	저어 가자
두 물거리	저어 가자
오색나비	새 날아가듯
요 노짝	벗어 지게
젓고 저어	어서 가자 ⁷⁾

6) 아침저녁으로 조수(潮水)가 들고 나는 때.



<그림 2> 관광객과 함께 하는 노래 공연(2015.4.16.)
[사진: 해녀박물관]

해녀 노동요의 가사를 보면 자연과 싸워야 하는 물질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고달픈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을 일구어가는 강력한 기백이 돋보인다. 돛배를 타고 물질을 나갈 때 불렀던 노동요 사설에는 해녀들이 바다를 밭과 똑같이 생각하며 불렀다는 인식이 깃들여 있다. 그만큼 해녀 노동요의 사설은 현실적이며 생동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녀들의 한과 소망을 담은 해녀 노동요는 제주어의 억양이 특징적인 강한 사투리로 불린다. 노동요마다 사설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해녀 노동요는 화자의 관심사와 기호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전해져오는 내용이 계속 변하면서 다양한 줄거리를 만들어 왔다. 해녀 노동요의 사설에는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려는 강한 도전정신과 막막한 심경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아래의 해녀 노동요를 살펴보면 서술형 보다는 의문형이 많으며, 반문법에서 짧은 억양으로 강한 의지력과 생동감을 표현한다.

어떻게 영 살아 가코

7)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233.

요 물질을 혀여근에
우리 집의 셸 사카
드로깅일 사 보카
어뎡ㅎ민 잘 살아 보코

<풀이>

어찌하여 살아 갈꼬
요 물질을 하여서는
우리 집에 소를 살까
작은 밭을 사 볼까
어찌하면 잘 살아 볼꼬⁸⁾



<그림 3> 50회 탐라문화제(2011.10.07.), 해녀놀이
[사진: 정선영]

8)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225.

2. 해녀 노동요의 교육적 가치

문화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의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는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철학과 사회의 모든 맥락을 일컫는다.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콘텐츠 산업은 신화·설화·인물의 기본 서사구조를 통해 재창조 시키고 있다. 제주해녀 노동요의 바탕이 되는 해녀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문화원형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녀들이 출가물질 나가면서 즐겨 불렀던 해녀 노동요는 현장감이 살아있는 구전문학이며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여줄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 스토리텔링 산업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주의 여성 의식이 담긴 해녀 노동요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문학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단순히 지역적인 해녀문화의 장을 넘어 해녀들의 삶을 이끌어 온 사회·경제·정치적 영역을 아우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 노동요 속의 해녀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축적되어온 역사의 한 장으로 후세에 전승해야 할 중요한 문화자산이며, 정신문화적 가치가 지대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해녀 노동요는 사설의 분량이나 질로 보아 제주 민요 중에서 ‘맷돌노래’와 ‘방아노래’에 버금간다. 이 세상에 해녀가 분포된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요, 노를 저으면서 본격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오직 제주의 해녀뿐이다. 해녀 노동요는 가락도 어기차고 역동적이며 슬한 사설이 전승되는 것으로 보아 노를 젓는 시간이 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제주해녀들이 본토 연안이나 북한까지 드나들면서 여러 날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험한 여정을 극복해 간 의지적이고 강인한 정신력을 살펴볼 수 있다(김영돈, 2002(下): 444참조).

장비가 허술한 상태에서 먼 바다까지 나가 추위와 맞서야 했던 해녀들이 부르던 노동요에는 역동적이고 직설적이며 제주여성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난다. 해녀가 되려면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했다. 바다와 인접한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는 6, 7세가 되면 얇은 바닷가에서 놀며 수영을 배우고, 차츰 자연스럽게 바닷잡이⁹⁾의 기술을 배운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해녀들의 물질 기량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걸어온 해녀의 길을 걷게 된다. 커가면서 수확하는 양에 따라 상군·중군·하군 이라는 해녀 세계의 서열에 편입된다.

해녀들은 노를 젓는 노동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구연에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발흥(發興)과 조흥(助興)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심미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뚜렷이 보여줬다(김영돈, 2002(下): 177참조). 해녀들은 흔히 돛배를 이용하여 바깥 물질을 나갔는데, 돛배를 타고 나가며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흥겨움을 느끼고 음악적 사설에 도취되어 노를 젓는 일은 한결 수월하게 되고 노동의 절실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부르는 노동요는 제주 바다의 자연환경에 맞선 해녀들에게 더 큰 의욕과 능률을 가져다주며,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공감하게 한다. 또한 개인적인 면에서도 의지를 북돋아 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노동요는 민중들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고 호소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해녀 노동요는 제주의 사회와 문화적인 성격을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구비전승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녀들이 삶어지고 살아 온 삶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응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소중한 일이다. 제주의 고유한 정체성과 얼이 배어있는 해녀 문화는 더 이상 어느 특권층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문화유산으로 사회에 공존하면서, 무형의 가치를 인식하고 후대에 이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 자원이다(김향희, 2013: 80-81참조).

해녀 노동요는 전통문화유산으로 그 시대의 삶과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 발자취이면서 문화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자료가 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342개 종목 중에서 세계 여성의 문화로 유일하게 제주해녀문화가 최초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결

9) 바다에서 썰물 때 각종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

과는 과거에 ‘변방의 섬’으로 괘시 받았던 제주도가 ‘세계 문화의 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제주해녀들을 높이 평가한 목록을 보면 잠수장비 없이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한다는 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물질 나가면서 부르는 해녀 노동요인 해녀노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 간 전승되는 대물림 문화, 해녀들의 공동체 생활 등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포함되었다.

21세기 콘텐츠의 핵심은 ‘이야기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문화산업이 곧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문화원형을 소재로 활용한 스토리텔링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해녀문화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보배로 알려진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등재 등과 연계한 올레 길은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 내고 있다.

해녀 노동요는 제주의 여성문화의 산물로 그들이 살아온 희로애락이 젖어들어 있으며 사설이 풍부하여 문학적 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문학이다. 어린이들에게 ‘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선조들의 지혜와 재치를 배우고, 주인공이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긍정적인 사고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감대와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이일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자신들과 같은 또래의 주인공이 나왔을 때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동화 속에서의 아이들은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역경을 이겨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함과, 고난을 극복해 가는 의지력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한대규, 2006: 86참조).

오늘에 이르러 제주의 상징적 여성상으로 자리매김 된 해녀들의 역사를 살아

있는 자료로 인식하고, 해녀 노동요를 모티브로 한 동화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낯선 해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해녀의 의지력과 진취적인 사고를 탐색하도록 한다.

Ⅲ. 제주해녀 노동요의 여성상

1. 노동요의 사례

해녀들 사이에는 “저승에서 전복을 따다 이승 자식 공부 시킨다”는 속담이 전해져 온다. 해녀들은 바닷속에서 커다란 자연산 전복을 발견하는 그 순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벅찬 기쁨과 의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바위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전복을 캐려다 자칫 생명을 잃는 참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김영돈, 2002(下): 190참조). 그만큼 해녀들에게 물질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운명적인 노동이다. 이런 절절한 사연을 담은 해녀 노동요는 해녀들이 물질을 나가면서 불렀던 ‘해녀작업의 노래’·‘출가의 목적’·‘출가하는 뱃길’과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가 있다. 그 외에 해녀들이 처지를 비판하며 자신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탓하며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로 ‘해녀들의 여정’ 등이 있다. 아래에 제시된 다섯 개의 사례를 통하여 노동요 속에 들어있는 제주해녀들의 강인한 의지력과 생활상을 들여다보자.

1) 해녀 작업의 노래

아래에 제시된 노동요는 해녀가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제주어와 표준어를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¹⁰⁾

<표 1> 해녀 작업의 노래

제주어	표준어
-----	-----

10) 김영돈(2002), 앞의 책(上), 민속원, pp.214-215.

너른 바당	앞을 재연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흔 질 두 질	들어간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저승 질이	왓다갓다	저승 길이	오락가락
탕 땡기는	칠성판아	타 다니는	칠성판아
잉영 사는	맹정포야	이어 사는	명정포(銘旌布)야
못홀 일이	요 일이어	못 할 일이	요 일이네
모진 광풍	불질 말라	모진 광풍	불질 말라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곡	유리 안경	눈에다 붙이고
테왁을	가심에 안곡	테왁을	가슴에 안고
무쇠 빗창	손에 찌곡	무쇠 빗창	손에 끼고
지픈 물 속	들어 보난	깊은 물 속	들어 보니
수심 줌북	하서라마는	수심 전북	많더라마는
내 숨 쫓란	못허여라	내 숨 짧아	못하더라
흔백 상자	등에다 지곡	흔백 상자	등에다 지고
가심 앞의	두렁박 차곡	가슴 앞에	두렁박 차고
흔 손에	빗창을 췌곡	한 손에	빗창을 쥐고
흔 손에	호미를 췌곡	한 손에	낫을 쥐고
흔 질 두 질	수지픈 물 속	한 길 두 길	깊은 물 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너른 바당	앞을 재연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흔 질 두 질	들어간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홍합 대합	비쪽비쪽	홍합 대합	비쪽비쪽
미역귀가	너홀너홀	미역귀가	너울너울
미역에만	정신 들연	미역에만	정신 들여
미역만	흐단 보난	미역만	하다 보니
숨 막히는 중	몰랐고나	숨 막히는 줄	모르는구나

‘해녀 작업의 노래’에서는 ‘바다 속으로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저승길이 오락가락 한다’는 표현으로 위태로움과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저승길’로 표현될 만큼 두려운 일이지만 해녀들은 주어진 운명으로 인식하고 목숨과 맞바꾸는 물질을 용맹스럽게 하면서 체념과 순응의 자세로 임한다.

‘타 다니는 칠성판아 이어 사는 명정포야’의 곡조에서 칠성판은 판의 바닥에 깔거나 시신 위에 덮는 널조각을 이르며, 명정포 또한 장례식에 쓰이는 조기(弔旗)로 죽음을 상징한다. 이는 물질을 목숨과 맞바꾼다는 각오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아울러 ‘흔백상자 등에다 지고’라는 노랫말에서 보듯이, 죽음을 등에 지고 바다를 누비는 험한 작업 환경과 해녀들의 처절함도 드러나 있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작업을 하는 제주해녀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저승길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숨이 다하는 상황에서도 작업은 계속 된다. 눈앞에 미역들이 ‘너울너울’거리고 흥함과 대함의 ‘비쪽비쪽’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보면 마지막 숨까지 참아가며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그림 4> 테왁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시 삼성로 40)]

2) 출가(出稼)의 목적

아래에 제시된 노동요는 해녀가 출가에 목적을 두고 부르는 노래로 제주어와 표준어를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¹¹⁾

11)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p.243-244.

<표 2> 출가의 목적

제주어		표준어	
돈아 돈아	말 몰른 돈아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막은 돈아	눈 어둔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부르경은에	돌아오라	부르거들랑	돌아오라
산도 설고	물도 선디	산도 설고	물도 선 데
어디란	일로 와시니	어디라고	이리로 왔나
돈일러아	돈일러라	돈일러라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돈의 전체긋	아니면	돈의 까닭	아니면
내가 요디	무사 오리	내가 요기	어째 오리
악담부담	버신 돈은	악착스리	번 돈은
안고나 가나	지고나 가나	안고나 가나	지고나 가나
서산의	지는 해는	서산에	지는 해는
누게 심으로	막을 수 시코	누구 힘으로	막을 수 있을꼬
요 벗들아	훈디 가게	요 벗들아	함께 가자
저 곳디랑	내 몬저 강	저 가엘랑	내 먼저 가서
메역이랑	내 몬저 흐저	미역일랑	내 먼저 하려네
울산 강	돈 벌어당	울산 가서	돈 벌어다가
가지 늦인	큰 집 사곡	처마 느린	큰 집 사고
명에 느린	큰 밭 사곡	밭머리 긴	큰 밭 사고
재미나게	살아 보게	재미나게	살아 보자
젊은 청년	돈 몰랑은	젊은 청년	돈 몰라선
만갓 고생	다 흘 거난	온갓 고생	다 할 거니
훈 푼 두 푼	다 모양은	한 푼 두 푼	다 모아선
어린 처즈	살릴 생각	어린 처자	살릴 생각
부모 성제	살릴 생각	무모 형제	살릴 생각
흐여산다	이여싸나	해야 한다	이여싸나

‘출가의 목적’은 출가물질 한 번 다녀오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던 해녀들에게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고 가정경제를 위하여 원정을 나섰다. 돈을 벌어 재산

을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녀들이 일정 기간 타향에 돈벌이 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동요이다. 열심히 일하여도 쉽게 모아지지 않는 돈을 ‘말 모른 돈·귀 막은 돈·눈 어두운 돈’이라 하며 돈의 야속함을 탓하고 원망을 한다. ‘산도 설고 물도 선데 어디라고 이리로 왔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돈 벌려고 고향을 떠나 먼 곳까지 온 신세를 한탄하며, ‘악착스럽게 번 돈은 안고나 가나 지고나 가나’하면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 봐도 결국 저승길은 빈손으로 나선다는 인생사로 푸념을 한다. ‘젊은 청년 돈 몰라선’이라는 이 대목에서는 젊어서 돈을 모르면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는 훈수도 두고 있다. ‘한 푼 두 푼 모아선 어린 처자, 부모 형제 살릴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정신을 주지시킨다. 그러면서 해녀들은 ‘울산 가서 돈 벌어다가 큰 집 사고 큰 밭 사고’라는 사설에서는 이번에 울산에 가서 번 돈으로 부를 이루리라는 야무진 야망을 품고 있다. 돈 벌려고 천리 길을 나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도 발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해녀들은 큰 집과 큰 밭을 사서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는 의지와 희망으로 서글픔을 이겨내고 있다.



<그림 5> 노해녀의 지팡이 [사진: 해녀박물관]

3) 노 짓는 기백

아래에 제시된 노동요는 해녀가 출가물질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제주어와 표준어를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¹²⁾

<표 3> 노 짓는 기백

제주어		표준어	
우리 배는	잼도 재다	우리 배는	재기도 재다
놈의 배는	뜸도 뜨다	남의 배는	뜨기도 뜨다
썩은 낭의	덕더린가	썩은 나무	덕더린가
요 몽고지	부러지민	요 노손	부러지면
한라산에	가시낭이	한라산에	가시나무가
엇일 말가		없을 말이나	
쭈무나문	설나문엔	스무남은	서른남은엔
요 네착을	버칠 것가	요 노 짝을	부칠 것인가
광풍아	불경 불라	광풍아	불테면 불어라
요 네착이	꺼꺼지카	요 노 짝이	꺼어질까
벼름이 지카	누게가	바람이 질까	누구가
이기느니	햏여 보게	이기는가	햏여 보자
쭈무나문	설나문엔	스무남은	서른남은엔
요 네 상착	놈 줄소냐	요 노 상책	남 줄소냐
지픈 바당	물질이사	깊은 바다	물질이야
놈을 준덜	상착이사	남을 준들	상책이야
놈 줄 내가	아니로다	남 줄 내가	아니로다
진 바당에	진 놀레 불렁	긴 바다에	긴 노래 불러
즈른 바당에	즈른 놀레 불렁	짧은 바다에	짧은 노래 불러
요 네 젓엉	어딜 가코	요 노 저어	어딜 갈꼬
강남 바당	비 저 오람시메	강남 바다	비 몰려 오니
괴주 바당	배 놓지 말라	제주 바다	배 놓지 말라

12)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p.231-232.

앞밭로랑	허위치명	앞 밭롤랑	허비적대며
뒷 밭로랑	오동치명	뒷 밭롤랑	치올려 차며
우리 서낭	어진 서낭	우리 서낭	어진 서낭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참매 새끼	느는 듯기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우리 성제	삼 성제가	우리 형제	삼 형제가
들어사난	네도 맞곡	들어서니	노도 맞고
배도 맞안	잘도 간다	배도 맞아	잘도 간다

‘노 젓는 기백’은 다른 해녀 노동요와는 차별 되어 웅골찬 기상으로 도드라진다. 동요처럼 짧은 문맥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쾌기를 표출 시킨다. ‘우리 배는 재기도 재다 남의 배는 뜨기도 뜨다’에서처럼 우리 배는 빨리 가는데 남의 배는 느리게 간다면서 우월감을 표현한다. 요 노가 부러지면 ‘한라산에 가시나무가 없을 소냐 광풍아 불 테면 불어라’ 하면서 ‘노 짝이 꺾어질까 바람이 질까’ 누가 이기는지 하여보자고 맞서면서 노 짝과 바람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배의 속도가 빠른 것을 ‘참매 새끼 나는 듯이’라고 빗대어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삼형제가 들어서니’ 노와 배의 기운이 잘 맞아 배가 잘 나간 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물질을 떠나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환경과 맞서는 당당한 기백이 보이며 노를 젓는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림 6> 돛단배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4) 해녀 출가(出稼) 생활의 노래

아래에 제시된 노동요는 해녀가 출가하고 생활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제주어와 표준어를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¹³⁾

<표 4>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

제 주 어		표 준 어	
우리나	고향은	우리나	고향은
제주야	성산폰디	제주야	성산포인데
잠깐	몸 지체	잠깐	몸 두기
오사까	동성국	오사카	동성구
십 이 번지에	사는고나	십 이 번지에	사는구나
바당 곳은	곰곰히고	바다 끝은	감감하고
고향 산천	뒤에 두영	고향 산천	뒤에 두어
지픈 바당	창창흔 므르	깊은 바다	창창한 마루
설운 낭군	냉겨 두영	설운 낭군	남겨 두어
얼음 ㄱ뜬	물살에다	얼음 같은	물살에다
무신 일로	이 모양인고	무슨 일로	이 모양인고
날은 좋곡	칭맹흔 날에	날도 좋고	칭명한 날에
이 네 젓영	어딜 가코	이 노 저어	어딜 갈꼬
바당 물결	뜻곡 가게	바다 물결	타고 가자
좁수질	흐명도	해녀질	하면서도
고향 생각	어떻히고	고향 생각	어떠할꼬
새벽 솔리	촌 브름에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곡 가는	저 지레기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이내몸은	신산흔난	이내몸은	신산하니
고향 소식	돈절이여	고향 소식	돈절이네
어린 애기	떼여 두곡	어린 아기	떼어 두고
늙은 부뫼	떼여 두곡	늙은 부모	떼어 두고
정든 낭군	떼여 두곡	정든 낭군	떼어 두고

13)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p.246-248.

돈 아니븐	나 무사 오리	돈 아니면	내 어찌 오리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막은 돈아	눈 어둑은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해녀 출가생활의 노래’에는 일본으로 건너 간 해녀들이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바다 끝은 감감하고’라는 표현으로 아득히 먼 고향을 그리며 외로운 심경을 그린다. 제주 성산포가 고향인 해녀들은 일본 오사카 동성구 까지 ‘눈멀고 귀먹은 돈’을 찾아 왔건만 물질을 하면서도 단절된 고향생각에 애달픔이 가득한 심정을 호소한다. ‘해녀 질 하면서도 고향 생각 어찌 할꼬’라는 사설로 외로움과 서글픔을 뽐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돈 아니면 내 어찌 오리’라는 구절에서는 먼 이국으로 물질하러 온 것은 오직 돈 때문이라는 쓰디쓴 타향살이의 고통을 풀어낸다. 고향 앞 바다에서도 물질이 쉽지 않은 터에 먼 타국에서 민가에 방을 얻어 자취 하면서 고향 생각은 가물가물하고, 부모와 입을 떠나 살아가는 외로움이 절절하게 그려진다.



<그림 7> 전초 판매 [사진: 해녀박물관]

5) 해녀들의 여정(餘情)¹⁴⁾

아래에 제시된 노동요는, 해녀에게 깊이 잠재해 있는 서러운 감정을 토해내는 노래로 제주어와 표준어를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

<표 5> 해녀들의 여정

제 주 어		표 준 어	
우리 어멍	날 설어 올 적	우리 어머니	날 서어 올 적
어느 바당	메역국 먹영	어느 바다	미역국 먹어
입입마다	거리어성고	잇잇마다	갈리었던고
서룬 어멍	날 날 적의	젊은 어머니	날 낳을 적에
해도 들도	웃인 날에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나를 낳아	놓아싱가	나를 낳아	놓았는가
나 일름을	불르지 말라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 이름을	불러나 보난	내 이름을	불러나 보니
즈죽즈죽	눈물이더라	글썩글썩	눈물이더라
산천마다	골골마다	산천마다	골골마다
흐르는 물은	설룬 정네	흐르는 물은	설운 정녀
간장 썩은	물이로구나	간장 썩은	물이로구나
브름 불영	휘어진 낭이	바람 불어	휘어진 나무가
봄비가 온덜	일어나라	봄비가 온들	일어나라
요 산 저 산	양 산 중에	요 산 저 산	양 산 중에
숨풀 속에	산 짐승은	수풀 속에	산 짐승은
불이 나카	근심인가	불이 날까	근심인가
홀로 이신	요내몸은	홀로 있는	요내몸은
병이 드카	근심인가	병이 들까	근심인가
한라산	허리엔	한라산	허리엔
낭덜도	하고요	나무들도	많고요
요내몸	가심엔	요내몸	가슴엔
즌 수심	하고나	잔 수심	많구나

14)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p.260-261.

노픈 꽃	산상에	높은 곳	산상에
웨로 산	소낭아	외로이 선	소나무여
나도야	널ㄱ찌	나도야	너같이
웨로이	삿고나	외로이	섰구나

‘해녀들의 여정’은 밭일을 하는 날이거나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날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머니와 자신을 원망하는 노래이다. 해녀들은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한 운명을 지녔다고 여기며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끌어왔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는 동류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¹⁵⁾ 고된 물질과 열심히 밭일을 해도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자신의 삶은, 어쩌다 한가한 날이면 더욱 서글프고 끝없이 고달프게만 느껴졌다. 어머니는 날 잉태할 적에 ‘어느 바다 미역국을 먹어’ 어쩌하여 하필이면 해녀로 태어나게 했는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막막함을 토로하며 ‘서럽고 고달픈 삶이면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 ‘내 이름을 불러나 보니 글썽글썽 눈물이 더라’라는 서사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달프고 처량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할 때면 눈물이 먼저 솟구친다는 처참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수풀 속에 산 짐승은 불이 날까 근심인가,’ ‘홀로 있는 요 내 몸은 병이 들까 근심인가’ 하면서 오히려 방어법을 쓰고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우환을 피해가겠다는 용기가 보이며, 높은 곳 산상에 ‘외로이 선 소나무여’ 나도 너같이 ‘외로이 섰구나’하는 구절에서는 자신처럼 외로이 선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다.

15) 좌혜경(2016-06), 「바다의 노래 ‘제주민요」, 『월간문화재사랑』.



<그림 8> 여정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제주해녀 노동요는 작업과 관련된 기능요(機能謠)로 생겨났다. 고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는 생업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삶의 도구이고, 민요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며 본원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여성들의 삶과 애환이 깊숙이 배어있는 제주해녀 노동요에는 자연에 지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력과 끈질긴 도전정신이 들어 있는데, 이는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온 제주인의 생활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도에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물질을 하면서 가난을 극복해야 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유희요(遊戱謠)보다 노동요가 많다. 먹고 살기에 바빴던 제주도민들에게 유희요는 가당치 않은 사치였으며, 힘겹고 지겨운 일들을 가락으로 이겨내던 정신은 제주 섬의 노동요에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삶의 고통이 가중되었는데, 특히 젊은이들

의 도일(渡日), 잦은 풍랑으로 인한 재해, 4:3에 이르기까지 인명피해로 인해 남자들이 줄어든 결과 아녀자들이 가정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테왁과 호미 하나만 들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면 바로 현금을 손아귀에 쥘 수 있다는 유혹에 해녀들은 목숨을 걸었다. 이처럼 해녀 노동요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에 도전하여 고난을 극복하려는 소망이 곳곳에 담겨 있다(양영자, 2007: 256참조).

열 두 뼈를 놀려 근에
 요 네착을 젓어 보게
 요 벤드레 근차진덜
 신사라가 씨져서나
 요내 흘목 부러진덜
 부산 병원장 씨져서나

<풀이>

열 두 뼈를 놀려서는
 요 노 짝을 저어보자
 요 벤드레¹⁶⁾ 끊어진들
 신서란¹⁷⁾이 씨 말랐더냐
 요 내 손목 부러진들
 부산 병원장 씨 말랐더냐¹⁸⁾

위 노동요에서도 해녀들의 응골찬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온 전신을 다하여 노를 저어 망망대해를 나아가자는 당찬 자신감으로 밧줄이 끊어지거나 손목이 부러져도 부산병원장이 고쳐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어서 빨리 노를 저어 목적지에

16) 배의 밧줄.

17) 백합과의 식물. 섬유질이 발달하여 짚물에 강하고 선박용 밧줄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18) 김영돈(2002), 앞의 책(上), pp.230-231.

도달해야 한다고 외친다.

물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생업이다. 그러나 어렵고 고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예측불허의 위험한 노동 현장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의욕과 희망도 안겨 주었다. 해녀에게 바다는 농부들의 밭과 같은 존재이며, 농부가 밭을 가꾸고 수확하듯이 해녀들도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해서 생활을 이어 나간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은 노동요를 통하여 삶과 의식 속에 깃든 고통과 한을 토해내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가족의 안위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림 9> 52회 탐라문화제(2013) [사진: 정선영]

제주해녀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개척정신과 강인한 의지력

제주 해녀들은 돛배를 이용해서 제주도 바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를 비롯한 한반도 각 연안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발동선이 나온 후로는 일본·중국·

러시아까지 원정물질을 나갔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동북아시아를 드나들었던 해녀들의 패기와 열정은 일반 여성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연약한 여인으로서 인근 나라에까지 이르렀던 용맹스러움도 놀라운 일이지만, 1920~1930년대에는 원정 해녀들의 수가 거의 5천명에 이르렀다. 해녀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국내외 연안으로 출가물질 나갔다가 가을이 되면 돌아오곤 했었으니, 이러한 모습은 철새의 이동과도 같은 도민 대이동이었다(김영돈, 2002(下): 196참조).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출가물질을 통하여 더 넓은 세계를 개척했던 해녀들은 해외원정에 도전하여 국제화를 이루어 냈으며 물질을 전문 직업으로 정착시키는 반면 경제적인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제주 해녀들을 포함한 제주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의지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각인되어온 모습은 무속이나 설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자주적이고 깨끗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노동요를 부르며 노를 젓는 기백과 높은 파도를 헤쳐 나아갔던 해녀들의 삶에서 그 기상이 잘 드러난다. 시집가기 전부터 밭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을 하고 가계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제주해녀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가족의 부양과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했다. 해녀 노동요에는 삶의 한풀이를 넘어서서 그들의 의지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진다.

제주의 기상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면서 비와 흐린 날씨가 180일에 달하여 바다를 일터로 삼고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함에도 환경을 극복해 낸 제주해녀들에게 바다는 늘 가까우면서 친숙한 곳으로 인식하였으며 바다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가정의 경제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김수정, 2008: 36참조). 그 대표적인 모습은 해녀들의 노동요를 통해서 자연에 적응하는 강인한 모습과 자연과 함께 공생해 나가는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0> 바다로 [사진: 해녀박물관]

2) 근면함과 공동체 의식

제주해녀들의 근면하고 강한 생존력은 제주인의 조냥¹⁹⁾ 정신과도 상통한다. 근면함과 절약에 바탕을 둔 제주의 조냥 정신을 통해서 제주 도민들은 악한 기후 조건과 척박한 땅을 극복하면서 자원을 아끼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짐으로 살아왔다.

제주 여성들의 근면함은 노동과 의식주에도 드러나며, 특히 제주에 유희요가 거의 없다는 점은 척박한 생활환경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노동요 의외에 놀면서 부르는 유희요가 없었으며, 이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 이외에는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척박한 생활환경을 반증한다. 노를 저으면서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부르던 노동요는 서로를 위로하고 부축하며 개개인의 나태함을 채찍질하기도 했다.

해녀 노동요는 제주해녀들의 현실과 정서를 표출한 구술체로서 제주의 사회구조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때로는 조직과 사회, 문화를 유지시키는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19) 물건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 제주의 방언.

사회가 안정된 시절의 해녀 노동요에는 평화로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며, 또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역시 고통스러운 그 시대상이 표출 된다. 해녀 노동요는 해녀들 자신의 소유물인 동시에 사회적 질서이다. 해녀 노동요는 공동체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동질적인 사회 인식과 공동체의 공감대를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해녀들은 노동요를 부르는 공간에서 서로가 사설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묶어주는 구실을 해내는 것이다.

공동체의 대표적인 산물로 전해지는 해녀들의 공간인 ‘불턱’에서는 물질을 하고 육지로 올라 온 해녀들이 장작불을 쬐는 곳으로, 이곳은 물질에 대한 지식을 선배로부터 전수 받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보를 듣고 전달하며 해녀사회의 질서나 상호간의 배려와 인간적인 면과 지혜로운 미덕도 배우게 된다.

제주해녀들은 얇은 바다를 할망바당²⁰⁾으로 정하여 고령 해녀들의 노후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금어(禁漁)기간을 정하여 해산물의 무단 채취를 막아 어장을 관리하며 계절에 따라 미역· 톳· 소라 등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해경(解警)²¹⁾되는 날을 기다렸다가 무리를 지어 작업하러 나간다. 이러한 조업방식 덕분에 바다는 해녀들의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20) 할머니의 바다.

21) 바다에 해산물 채취를 일정기간 금했다가 해제 하는 것.

IV.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

1. 동화의 특징

동화는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되는 어린이를 위한 산문문학의 한 갈래이며, 동화의 근원은 원시시대의 설화문학이다. 동화는 옛날이야기나 민담·우화·신화·전설 등과 같은 설화의 종류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고치거나 동화라는 형태 속에 포용한 것이다. 동화가 지향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재구성 한다기보다는 시정신(詩精神)에 입각한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데에 있다.²²⁾

창작 동화는 작가가 동심을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작가의 상상이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 지은 것이 많다. 현재 동화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그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의 동화는 단지 어린이의 문학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편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동화는 그 어떤 문학의 장르보다 세분화 되어있으며 동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독특한 문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의 동화는 여러 갈래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로 동화의 시초는 경이로운 요소와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로, 작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여 쓴 문학으로 볼 수 있다.

동화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 작품 내용은 동심의 세계를 다룬 것이고 셋째, 형식적 동화 구조는 현실을 재구성 하거나 허구적 서사이면서 연령의 이해단계에 맞는 구성이라야 하며 넷째, 표현은 구체적 서사 언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6904>

어로써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이 이해하는데 알맞은 문장이라야 할 것이다(황선미, 2005: 20참조).

앞에서 살펴 본 동화의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제주해녀 노동요를 소재로 한 동화의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화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 본다. 동화를 진행하는 주제와 소재를 선정하고 동화의 구성요소와 스토리텔링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해녀 노동요의 어떠한 부분을 차용하여 어떻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연결한다.

2. 동화의 창작요소

1) 기획의도

기획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작품은 어떠한 장르를 선택할 것인지, 읽을 대상과 시점, 그리고 분량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제주해녀 노동요를 콘텐츠로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동화를 선택한 것은 노동요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와의 교감이 중요한 동화는 어린이들의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바다라는 배경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애정과 친근감을 느끼는 아동들의 물활론(物活論)을 자극시킬 수 있으며 작품을 읽을 때 상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이정숙, 2001: 26-27 참조).

작품을 읽을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하였으며 분량은 A4 23장으로 정하였다. 독자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정한 것은 소재가 전달하는 의미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애환 등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12세 정도는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시점을 일인칭으로 정한 것은, 일인칭 시점인 경우에 독자인 어린이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스토리텔링을 구현할 동화기획 표를 제시한다.

<표 6> 동화기획 표

장르	동화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분량	A4 23장

2) 주제 및 소재

(1) 동화의 주제

동화의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하는 이야기로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은 작품에 형성된 이야기를 통하여 구성요소와 소통하면서 주제를 수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제시했을 때 독자가 위치해있는 주변 환경과 개개인의 가족구성원에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로 수용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큰 맥락은 변하지 않으며 동화에 있어서 주제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동화 ‘진주의 바당’의 주제는 어려움 속에서 해녀의 꿈을 키워가는 소녀의 이야기다. 제주해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당으로 주인공인 진주가 상군해녀가 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집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정을 그린다.

(2) 동화의 소재

동화는 작가의 의도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진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가공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통일감 있게 플롯을 구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능력이다. 어린이도 어른들처럼 우주의 공간에서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동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다(황선미, 2005: 20참조).

창작 동화 “진주의 바당”은 부지런하고 주체적이며 의지적인 제주의 여성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 제주해녀 노동요를 소재로 삼아 쓴 동화이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재로 제주해녀 노동요를 설정한 것은 현대적 이상형인 여성상과 부합되는 요소가 들어있고 강인한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문화원형이라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구전전승을 통한 생명성과 제주 여성의 상징적 요소들이 나타나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기에 적절하다.

동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스토리는 제주해녀 노동요의 사설에 드러나는 가사를 차용했다. 해녀 노동요는 동화 곳곳에 삽입되어 할머니와 어머니, 주인공까지 3대에 걸쳐 대물림하여 부르고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과정을 그린다.

가사를 그대로 차용했을 때 동화와 만나는 어린이들이 노동요의 난해한 제주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로 된 내용을 차용해서 쓰되 이해하기 어려운 서사적 내용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풀어가는 구조를 선택하였다.

동화의 소재로 선정한 해녀 노동요 5곡에 들어 있는 가사들 중에서 동화의 사설로 들어 갈 구절을 선정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① 해녀작업의 노래

“무쇠 빗창 손에 끼고

깊은 물 속 들어 보니
 수십 전복 많더라마는
 내 숨 짧아 못하더라.
 홍합 대합 비쭈비쭈
 미역귀가 너울너울
 미역에만 정신 들어
 미역만 하다 보니
 숨 막히는 줄 모르는구나”

해녀작업의 노래에서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전복이 많지만 숨이 짧아서 못
 켤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물질에서 돌아 온 엄마는 대왕문어와 사투를
 벌이던 이야기와 전복을 놓쳤다는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엄마는 바다에서 때로는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진주는 물질을 하다가 죽음에 이른
 윗동네 할머니를 떠올린다.

엄마가 바느질하며 ‘홍합 대합 비쭈비쭈 미역귀가 너울너울’ 많다는 대목의 노
 래를 부르는데, 진주도 신이 나서 ‘미역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자 엄마는 ‘미역만
 하다보면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한다.

② 출가의 목적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부르거들랑 돌아오라.
 울산 가서 돈 벌어다가
 처마 느린 큰 집 사고
 발머리 긴 큰 발 사고
 재미나게 살아보자”

‘돈은 말을 못하며 귀가 멀고, 눈까지 어두워서 길을 몰라서 나에게로 못 오고 있으니 제발 부르면 나에게로 돌아오라’며 간절하게 돈이 와 줄 것을 청하는 노래를 엄마는 부르고 진주는 따라 부른다. 노래를 마치자 진주는 ‘돈에도 입이랑 눈이 있는지’ 묻자 엄마는 ‘귀먹은 척, 눈 어두운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타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어서 ‘돈 벌어다가 처마 느린 큰 집과 밭머리 긴 큰 밭 사자’는 대목에서는 ‘처마 느린 집과 밭머리 긴 밭은 어떤 것인지’ 묻고 엄마는 설명을 해 준다. 엄마는 출가물질이 정해지자 설거지를 하면서 슬프면서도 굳센 의지가 느껴지는 노래를 부른다. ‘우리도 재미있게 잘 살아 보자’는 꿈과 야망을 노래한다.

③ 노젓는 기백

“광풍아 불 태면 불어라
요 노 짝이 꺾어질까
바람이 질까 누가
이기는가 하여 보자.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진주는 자맥질 연습을 하다가 쉬면서 엄마가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요 노 짝이 꺾어질까 누가 이기는가 하여보자’라는 노래에서 엄마의 기운을 느낀다. 진주는 바닷가 돌담에 드러누워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길 소원한다.

할머니가 기백이 넘치던 시절에는 ‘참매 새끼 나는 듯이’ 배가 잘 나갔다고 자랑한다. 할머니와 진주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할머니는 옛 일을 회상하며 상군해녀로 잘나가던 시절을 진주에게 들려준다.

④ 해녀 출가 생활의 노래

“해녀 질 하면서도
고향 생각 어떠할꼬
어린 아기 떼어 두고
늙은 부모 떼어 두고
정든 낭군 떼어 두고
돈 아니면 내 어찌 오리”

할머니는 출가물질 나가서 외로움을 달래던 노래를 부르자 진주가 묻는다. “엄마도 우리 생각 많이 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출가물질 나가면 고향생각, 아이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면서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면 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떠올린다.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할머니와 엄마 생각이 간절한 진주는 서로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눈다.

⑤ 해녀들의 여정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불러나 보니
글썩글썩 눈물이더라”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이 대목의 노래를 부르는 날은 엄마와 할머니가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이다. 특히 할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이면 진주는 못 들은 척 한다.

3) 동화의 구성요소

구성은 이야기의 짜임새로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으며, 논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화의 구성요소는 여러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서사 구성의 3요소인 인물·배경·사건으로 모든 스토리텔링은 이 틀을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시켜야 한다.

본고에서 창작결과로 제시한 “진주의 바닷”은 제주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적인 매체로 작용하는 바다와 제주해녀의 삶을 문화에 융합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해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 쓴 “진주의 바닷”에서는 해녀 노동요를 부분적으로 끄집어내어 작품에 녹여내고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때 제공되는 노동요의 서사는 동화의 핵심 아이디어로 기능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정을 짚어지고 살아가는 어느 해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작부분은 엄마가 물질 다녀와서 대왕문어가 덮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면서부터 스토리가 진행된다.

아래에서 서사의 3요소인 인물·배경·사건에 대한 기본 요소를 살펴본다.

(1) 인물

동화에서 주요인물은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서사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학 작품에서의 주인공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작품에서 주요한 인물은 다른 인물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성격으로 등장하지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표현 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등장인물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주변인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때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외형·행위·대사 등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된다(윤혜원, 2016: 23 참조).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장인물은 작가를 대변해주는 요소이다. 독자들은 각자가 경험한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해 나간다. 인물이 작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현시대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설정하여, 주위에 순응하기보다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기적해 나가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시대상을 드러내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현대의 독자들은 자신과 대비시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성공과 성장이 주요한 모티브인 까닭이다.

“진주의 바닷”에서의 등장인물도 해녀 노동요에는 나오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주인공은 의지적이며 주체적인 인물로 설정하였다. 주인공인 진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개척하려는 도전의식이 강한 어린이로 등장한다. 그 외 집안을 이끌어 가는 가장 역할의 엄마와 할머니, 남동생까지 네 사람이 주변 인물의 역할을 맡는다.

주인공인 진주는 할머니와 엄마의 대를 이어 해녀를 꿈꾸며 살아가는 총명한 어린이로,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차고 지혜로운 소녀로 자란다. 상군해녀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자택질에 혼을 쏟고 방학이 되자 엄마가 출가물질 나가있는 곳으로 견학을 나간다.

집안의 가장인 엄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의지적인 여성이다. 남편이 실종된 후에 남긴 빚과 가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에 할머니의 사고까지 겹치면서 물질과 발일 외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벌기위해 출가물질 다녀온 후 다음 해에는 영수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출가물질을 나간다.

아빠는 엄마가 받을 사려고 모았던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 배를 산다. 태풍이 부는 날 배와 함께 실종되며 아빠의 부재는 집안에 큰 어려움을 남긴다.

할머니는 집안의 어른으로 73세의 노인이다. 젊었을 때 상군해녀였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문어를 잡는 방법에는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다. 바다에 문어잡이 나갔다가 허리를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막내인 영수는 5세가 되어도 말을 못하고 인지능력도 또래에 비하여 늦은 아

이다. 엄마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영수의 유일한 친구는 오리이며, 오리와 함께 마당에서 뒹굴며 놀고 집안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는 아이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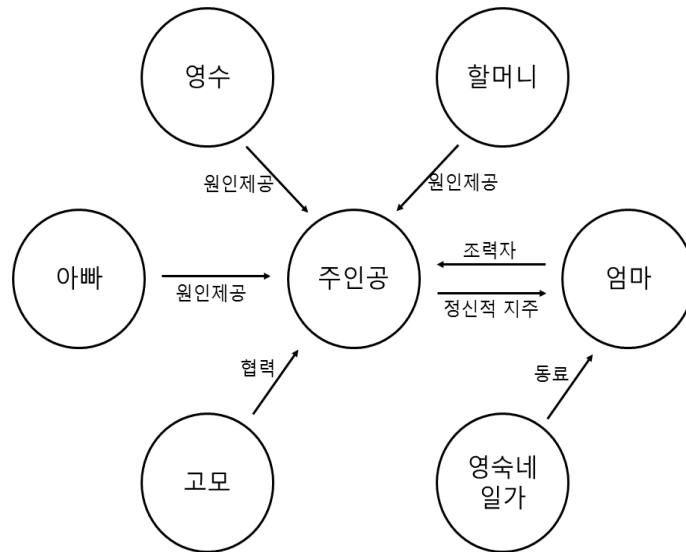
고모는 자주 집에 와서 할머니 간병을 하며 진주를 도와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다. 그 외 영숙과 영숙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동화 구성인물

역할	등장인물	특징
주인공	진주	12세의 소녀로 낙천적이고 진취적이며 상군 해녀가 되기 위하여 자맥질 연습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출가물질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집안을 꾸려 나간다.
	엄마	상군해녀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의지적이고 인내심 많은 역할을 맡는다.
	아빠	태풍이 부는 날 축항에서 배와 함께 실종되며 집안에 빛을 남긴다.
	할머니	젊었을 때 해녀였던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영수	진주의 동생인 영수는 5세가 되어도 말을 못 한다.
	고모	친정 조카인 진주를 아끼며 가끔 와서 진주의 일손을 덜어준다.
	영숙과 영숙의 아버지	진주할머니가 다쳤을 때 영숙이와 영숙의 아버지가 집으로 할머니를 업고 온다.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인물들은 위의 <표 7>에 제시된 7군의 인물들이다. 이를 동화의 주요 사건과 감정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등장인물 관계도

(2) 배경

배경은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이 행동을 하게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한다. 작품에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경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서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물의 성격이나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와 인물들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장치들이 배경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윤혜원, 2016: 24참조).

공간적인 배경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장소이다.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암시하거나 드러내기도 한다.

시간적인 배경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야기의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맞는 문화와 정신세계가 그려져야 한다.

제시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 작성된 배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동화의 배경

	내용
공간적 배경	제주 어민들이 살아가는 제주 해안가 작은 마을에 20여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로 설정했다. 여성들은 이른 아침이면 밭일을 나갔다가 물때가 되면 바다로 나가는 반농반어의 일을 예사롭게 여기며 산다.
시간적 배경	196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다. 배경을 이 때로 정한 것은 해녀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로, 1960년대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어촌의 가계경제가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 해녀들의 활동이 가장 빈번했던 때이다.

(3) 사건

작품 속에서 사건은 동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면서 주제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작가의 의도에 따라 어떠한 결말이 따르고, 그 사건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고 진행된다. 따라서 동화 스토리텔링은 시간적인 연쇄로 이루어지는 등장인물들의 사건으로 모든 서사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배열하여 스토리를 전개한다.

“진주의 바당”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으며 살아가던 진주네 가정에 할머니가 다치면서 큰 어려움이 닥친다. 동생과 할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엄마는 출가물질을 나가고 엄마가 떠나자 주인공은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학교도 거의 못 나가는 상태이다.

4) 플롯(plot)

플롯은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인물과 배경·주제·문체 등을 허구의 서사로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줄거리는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고, 플롯은 작가의 의도대로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배열을 의미하며 재구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건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5단계로 하나의 플롯으로 이어져 통일적인 구성을 해야 한다²³⁾. 동화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래, 동화가 가져야 할 플롯 구조에 관련한 내용과 “진주의 바당”에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발단은 작품의 첫 얼굴이자 전체 작품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첫 단계에서 독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작품 전체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성향과 개성이 드러나면서 작품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해야 한다. 동화에서 발단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몇 가지 요령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결해야 한다. 인물과 배경에 대한 설정을 줄이고 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어린이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앞부분에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게 뭘까?’하는 호기심을 강하게 도출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슬픔이나 놀라움과 신기함·동정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의(友誼)와 상징 수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넷째, 설명과 서술은 가급적 배제시킨다. 인물이나 배경은 묘사로 진행시키도록 한다.

(2) 전개

23) 다음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11ma213c12>

전개 부분에서는 이미 기획한 대로 이야기를 진행시켜가는 과정으로, 점점 재미있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간결하고 내용의 흐름이 신속해야 한다.

둘째, 발단에서 갖게 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의 추리와 상상을 따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성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과정에서 마무리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주제의 틀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고 사건마다의 개연적인 논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갈등이 계속 되어야하며 재미를 주어야 한다.

넷째, 이야기 진행이 처음에 설정했던 초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4) 절정

갈등이 극에 달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전환점으로 가장 의미 있는 단계이며, 독자들이 가장 마음을 졸이게 되고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긴장감으로 시선을 멈출 수 없는 단계이다.

(5)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결말을 맞게 되며 결국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중심적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계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점이며 자연스러운 이야기 자체로 교훈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들이 다 못 알아들을까봐 군더더기를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사구조에 따른 동화 “진주의 바당”의 분석을 위에 제시된 형식에 의해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동화 서사 구조

순서	내 용
발단	아버지가 태풍에 휩쓸려 행방불명이 되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다.
전개	엄마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으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간다.
위기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 반신불수가 된다. 엄마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가물질을 나선다.
절정	엄마가 떠나자 할머니의 간호와 영수를 돌봐야 하는 일은 진주의 몫으로 남는다. 진주는 맡은 소임을 다하며 상군해녀가 되기 위해 자맥질 연습에 열중한다.
결말	엄마가 출가물질 다녀와서 할머니는 수술을 받고 회복단계로 들어선다. 진주는 영수의 언어치료를 위해 출가물질에 합류할 것을 청한다. 진주는 방학을 이용해 책과 간식을 등에 동여매고, 엄마가 출가물질 나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3. 창작 동화의 실제: “진주의 바당”

위에 제시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동화를 작성하였으며 간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엄마는 물질을 다녀와서 대왕문어와 사투를 벌이던 이야기를 한다.
- 2) 진주는 해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맥질 연습을 시작한다.
- 3) 아버지가 태풍에 휩쓸려 배와 함께 실종되면서 집안이 기울어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4)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반신불수 되자 집안은 또 위기에 처한다.
- 5) 엄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물질에 희망을 걸었다.
- 6) 엄마가 떠나자 진주는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엄마와 같은 상군해녀가 되기 위해 자맥질에 매진한다.
- 7) 엄마가 없는 동안 할머니는 물질에 관련 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진주의 꿈을 북돋아 준다.
- 8) 진주는 꿈속에서 바닷속을 자유롭게 수영하고 다니며 즐비해 있는 미역과 기어 다니는 전복들을 본다.
- 9) 엄마는 할머니가 수술에 성공하자 다음해에 또 영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출가 물질 나간다.
- 10) 진주는 엄마가 출가물질 나가 있는 곳으로 견학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위에 간추린 내용을 기반으로 창작된 실제 동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진주의 바당

제주도 해안가에 초가집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 안으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들어섭니다. 올래 밖까지 마중을 나온 진주는 엄마를 보자 뛰어 나와 엄마를 반깁니다.

“엄마! 우리 할망²⁴은 물꾸럭²⁵도 하영²⁶ 잡았수다.”

“참말이가? 나도 큰 물꾸럭을 잡을 뻔 했져!”

“못 잡안마썸?”

“응, 워낙 큰 놈인디 나를 덮칠 뻔 헐!”

“정말?”

나는 깜짝 놀라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얘기 했어요.

“이만큼 큰 물꾸럭마썸?”

“응.”

엄마도 나처럼 양팔을 벌리고 아주 큰 문어라고 했어요.

엄마는 문어와 싸우던 얘기를 하면서 그 광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듣고만 있어도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대왕문어는 상상만 해도 무섭거든요.

“엄마, 큰일 날 뻔 했수다예!”

“어젯밤 꿈이 뒤숭숭 허연게마는²⁷…….”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후에 엄마의 노랫소리가 가냘프게 흘러 나왔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왕문어가 못 듣게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엄마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24) 할머니

25) 문어(文魚)

26) 많이

27) 하더니만

노래를 한 곡절 부르고 엄마는 푸념처럼 말했어요.

“오늘은 전복도 놓치고 고생만 헛 날이여!”

“전복도 놓쳤수강²⁸⁾?”

“응, 오늘은 온 몸이 느릿햐찌²⁹⁾! 하영 큰 건디 숨이 짧아서 못 잡았찌!”

“에그 어땡허코게³⁰⁾!”

과연 ‘그 전복이 얼마나 큰 것일까’ 상상하고 있는데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내영 잡으려다 목숨을 잃기도 헛다.”

“음, 작년에 윗동네 할망처럼?”

“응, 그 할망처럼.”

엄마는 그때 일을 회상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엄마는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바닷속은 참 신비롭고 이 세상과는 다른 별천지라고 했어요. 얕은 물가만 들여다봐도 참 신기한 게 많은데 깊은 바다는 얼마나 신비로울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엄마의 얘기를 듣다보면 언제 어른이 되어 깊은 바다를 볼 수 있을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답니다.

엄마는 바농³¹⁾질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메역³²⁾도 하영 이서마썸?”

“응, 흥합이영 대합이영, 메역귀도 하영 있찌!”

“와! 정말이우짜?”

“메역만 허당보민³³⁾ 숨 막히는 줄도 모른다.”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다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바닷속 전경이 눈에 아른거리고 우영팻³⁴⁾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가 미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8) 놓쳤나요

29) 느릿하다

30) 어찌하면 좋을지 아쉬움의 표현

31) 바늘

32) 미역

33) 하다보면

엄마가 물질 다녀 온 날이면 참 이상도 하죠. 그날은 꼭 꿈을 꾸어요.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래를 부르다 잠이 들면, 엄마가 놓치고 왔다는 전복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거북이처럼 바다를 헤집고 다녔어요.

한참을 헤매다 잠에서 깨고 나면 미역도 전복도 사라지고 온 몸에 맥이 풀렸어요.

“또 바닷 꿈을 꿨구나!”

“.....”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엄마 물안경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흠, 나도 거북이처럼 오래 견딜 거야!’

엄마의 물안경은 아주 시원하게 잘 보였어요. 모래위에는 파래, 해초 찌꺼기들이 나풀나풀 춤추고 있는 게 보여요.

의지와는 다르게 나의 몸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여 다닙니다.

‘어, 이건 아닌데!’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기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꽤, 꽤.....”

숨을 참다가 짠 바닷물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네! 꿈에서는 물속에서 오래 견디었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자꾸 물속으로 머리를 쳐 박곤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마찬가지!

“으! 꽤, 꽤, 꽤.....”

한참동안 목에 걸린 짠물을 뱉어내고 갯가에 앉아 숨을 고르다, 철벽철벽 무거운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는데 엄마가 의아한 듯이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어드레³⁵⁾ 멩겨³⁶⁾ 왓시냐³⁷⁾?”

34)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

35) 어디에

36) 다녀

“.....”

바닷속에서 오래 머물 수 없던 나는,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울퉁불퉁한 갯바위를 짹짹 달리는 나를 보면서 늘 그랬어요.

“너는 바당³⁸⁾에만 오면 신들린 아이 되어이?”

“응! 바당은 신나! 어제도 오늘도 맨날 오라고 불러마썸³⁹⁾!”

“바당이 경⁴⁰⁾ 좋으냐?”

“응, 나는 바당이 좋아.”

“너는 꼭 아방⁴¹⁾을 닮았구나.”

“헤헤,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디가 닮아신고⁴²⁾?”

집에 오자마자 숯검정으로 수염을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아빠 흉내를 냅니다.

“영수야! 흠, 내가 아방이다!”

“어, 어, 누누 아아, 호! 호! 히히(누나가 아빠래요. 혼내! 혼내! 히히).”

“약오르지롱!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았대!”

“히, 나, 나, 아아!(칭, 내가, 내가, 아빠 될 꺼야!)

우리를 지켜보던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이 닮아지 마랑 영수는 아방 허곡, 진주는 어멍⁴³⁾ 허민 되켜!”

한동안 평온한 듯 잠잠하던 마을에는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면서 심상치 않는 먹구름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농사 모종이 자라고 있는 밭과 축항으로 우왕좌왕 바빠

37) 오느냐

38) 바다

39) 불러요

40) 그렇게

41) 아버지

42) 닮았을까

43) 어머니

움직이며 비바람과 맞설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물꼬를 트고
눌⁴⁴⁾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소란을 떠는 중에 굵은 비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람이 세
차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마루 문짝이 덜컹거리더니 마당에 있는 대야와
쌓아 둔 보릿짚 놀이 무너져 날아가면서, 드디어 태풍은 시작 되었어요.

날은 어둑어둑 어두워지는데 멈출 것 같지 않은 비바람은 ‘쌍쌍’ 무서운
소리를 내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저녁도 거른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무사⁴⁵⁾ 안 완수가⁴⁶⁾?”

“태풍이 올 때는 배를 지켜야 한다.”

이 비바람에도 배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왜 그리
해야만 하는지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기색이 편치
않았고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할머니는 좁은 마루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립니다.

“할망당⁴⁷⁾에 가사켜⁴⁸⁾.”

그러나 비바람은 더욱 거센 숨을 몰아쉬며 날뛰었습니다.

엄마는 이 비바람에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다며 할머니를 만류하였습니
다.

엄마와 할머니는 두 손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빌엄수다⁴⁹⁾ 바람 좀 멈추게 하여줍써⁵⁰⁾”

“빌엄수다, 우리 배 무사하게 하여줍써.”

나도 엄마 따라서 눈감고 빌다가 영수 곁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

44) 가리(곡식, 땀나무 등을 쌓은 더미)

45) 왜

46) 오나요

47) 본향당(本鄉堂)

48) 가야겠다

49) 비나이다

50) 해 주세요

니다.

이른 새벽, 눈을 떠보니 어젯밤 거칠게 휘청거리던 대나무가 곳곳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아, 태풍이 갔구나!’ 안도의 숨을 크게 쉬면서 엄마를 불러 보았지만 기척이 없습니다.

“엄마!”

“.....”

“할머니!”

“.....”

집안은 정적에 쌓여 영수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릴 뿐입니다.

순간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고 나는 후다닥 일어나 갯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어제 늦도록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던 게 떠오른 까닭입니다.

바닷가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늦도록 안 들어 온 아빠와 이른 새벽부터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갯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까지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오그라들고 떨렸지만 사람들 틈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덜⁵¹⁾! 어디 가시고!”

이미 목소리가 잠긴 채 뉘두리에 가까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 했어요.

“어떻허코⁵²⁾ 진주야. 아방이 사라졌찌! 배가 휩쓸려 가부렀찌!”

“아빠도?”

“아고, 이 일을 어떻게코게!”

51) 아들

52) 어떻게 할까

“아빠!”

나는 아빠를 부르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피고 있는 해안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데 저 멀리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뉘이 나간 엄마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바위틈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식구들은 매일 바닷가를 탐색하러 다녔는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배의 좌편들을 보았어요. 아빠가 까만 글씨로 쓴 ‘진주호’라는 이름이 적힌 큰 널판이 모래위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 널판을 잡고 할머니와 엄마, 고모는 또 한 번 자지러지고, 그날 태풍과 함께 간 아빠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슬픈 곡조는 아니었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하고 난 후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꾸짖는 날이면 아주 더 작은 소리로 슬픈 가락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럴 때면 나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할머니 미워! 할망은 우리 어명만 미워해!”

엄마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은 할머니 이불 속에서 자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런 날은 할머니의 퀴퀴한 냄새도 더 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때때로 잔소리를 하지만, 엄마는 대꾸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명이 아방을 죽였찌⁵³⁾!”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의 사고를 왜 엄마 탓이라고 하는지, 너무도 무서워서 그 이후로 아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영수와 매일 흙 마당에서 텅구는 오리도 쑥쑥 자라서 알을 낳기 시작했

53) 죽였다

습니다.

할머니는 오리 알이랑 문어를 팔아서, 주맹기⁵⁴)에 짤랑거리는 동전이 수북해지자 엄마를 타박하는 일도 뜸해졌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불 속에서 나던 특유의 냄새도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두드러기가 난다면서 오리 알을 안 먹어요. 그러나 영수가 먹다 남은 것은 먹는답니다. 할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알아요. 난 할머니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문어가 숨어 있는 고망⁵⁵)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제 값을 안 주는, 발이 두 개 잘려나간 문어를 가지고 왔어요.

문어를 주물럭거리다가 영수도 예전에 나처럼 기겁을 했어요. 큰 문어가 팔 전체를 감고 꾸물대는 거예요. 접촉제처럼 찰싹 달라붙으면 굉장히 힘도 세고 무섭거든요.

“어, 어, 어! ……(엄마, 엄마, 엄마! ……).”

오리가 껍뻍거리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댔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기겁을 해서 문어발을 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고개 숙여 킁킁거리며 한 참 웃었습니다. 나도 꼭 그랬거든요.

그 날은 오리도 알을 세 개 낳고, 할머니가 기분이 좋은 날 일어난 일입니다.

“진주야, 동생이랑 잘 놀았지⁵⁶). 바당에 강⁵⁷) 한 바퀴 돌양 오켜.”

“네 할머니, 전복도 잡양 읍씨예!”

콧노래까지 응얼거리며 집을 나선 할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영숙이 아버

54) 주머니

55) 구멍

56) 놀고 있어라

57) 가서

지 등에 업혀서 왔어요. 영숙이는 할머니의 테왁을 들고 뒤 따라 오면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진주야, 너네⁵⁸⁾할망 하영 다쳤쨌⁵⁹⁾!”

할머니는 팔만 허우적거릴 뿐 양쪽 다리가 축 늘어져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몰려와서 할머니는 문어를 잡으려다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와서 할머니를 업고 읍내 병원에 다녀온 날은,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답니다.

아빠의 사고로 힘들었던 집안이 조금씩 편안해지나 했더니 또 집안은 초상집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지 영수도 저만치에서 오리하고만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병환을 얻으니 당장 수술비도 없거니와 영수를 돌볼 사람도 없어서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미음도 거부하고 한 숟만 쉬었어요.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상심허지 맙쨌. 이보다 더 큰일을 당해도 살아 왔수게!”

“에고 내가 먼저 죽어사 허는디…….”

“어머니 무슨 말을 경 험수가!”

“이 미음 치우라. 속이 메슥거려서 못 먹으켜!”

엄마는 할머니가 음식을 거부 하는 이유를 말해줬어요.

“기저귀에 똥을 싸야한다고 그러신다.”

“네?”

그 얘길 들으니 할머니가 더 불쌍해졌습니다. 평소에 까불지 말고 얹전히 굴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멀리 사는 고모랑 명절 때나 보

58) 너희
59) 다쳤다

던, 친척들이 다녀갔지만 뽀족한 수가 없나 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영수에 대해서도, 다들 한 마디씩 하고 갔어요. 아무리 늦둥이라도 다섯 살이 되면, 말을 해야 한다고요. 친척들 앞에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엄마는 한숨을 쉬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엄마는 길쌈을 하면서 자그마한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엄마 따라 노래를 부르다가 물었어요.

“엄마. 돈에도 입이영 눈이영 있수가?”

“응, 그건 귀먹은 척, 눈 어두운 척 허명⁶⁰)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란다.

“아! 혼저⁶¹) 우리 집으로 오랭⁶²) 허는 말이구나.”

“아유, 이 똑똑이!”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할망당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할머니가 다친 것을 엄마의 탓으로 여겼어요. 작년에도 영수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할망당 용왕님이 낮게 해 주었다고 믿었어요. 할망당에 가서 치성을 드릴 때면 엄마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게 더 있어요.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면서 엄마는 더 늦도록 일하고 돌아왔어요. 바다와 밭일, 동네 품삯일 까지 마다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다보니 동생과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내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말⁶³) 잡으려 못 가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고모가 못 올 때면 학교까지 결석을 해야 합니다.

돈 구하러 다니던 엄마는 결심을 한 듯 나를 불렀어요.

“진주야, 다음 달에 출가물질 가야켜⁶⁴).”

“엄마, 이번엔 어디로 감수광?”

60) 하면서
61) 어서
62) 오라고
63) 고동
64) 가야겠다

“배 타고 멀리 육지로 물질하러 갈 거여.”

“육지 가민 메역이랑 진복이 더 하영 이서마썸⁶⁵⁾?”

엄마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기여⁶⁶⁾, 하영 있찌!”

“엄마 혼자서 구덕⁶⁷⁾ 숨뻑허게⁶⁸⁾ 잡을 수 이서마썸?”

“응, 저 구덕만큼 하영 잡아 진다!”

엄마는 큰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어명도 가고, 우리 동네에서만 다섯 사람이 갈 거여!”

“경허민⁶⁹⁾ 나도 엄마 따라 가젠⁷⁰⁾!”

“우리 진주는 해녀 마랑⁷¹⁾ 선생님 되민 좋겠다.”

“난 해녀가 더 좋아요.”

“해녀는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

“그래도 난 바당이 좋아요!”

엄마는 촉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찬찬이 말을 꺼냈습니다.

“진주야.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

“.....”

“네 도움 없으면 어명은 출가물질 가지 못 헐다.”

“.....”

“할머니 수술비도 마련허고, 영수도 큰 병원에 가봐야 허고!”

나는 문득 엄마가 돈이 생기면 한 푼 두 푼 모아놓는 상자가 생각났어
요.

“엄마, 저기 살래⁷²⁾ 위에 돈 있수게⁷³⁾!”

65) 있나요
 66) 그래
 67) 대 바구니
 68) 가득히
 69) 그러면
 70) 갈래
 71) 말고
 72) 찬장

“으응 그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다.”

“.....”

“진주야, 영허민⁷⁴⁾ 어명은 못 간다.”

“.....”

“우리 진주 착하지?”

“몰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는 끄떡였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간곡히 나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영수, 그리고 바다에서 실종 된 아버지가 남긴 빛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아는 까닭입니다.

출가물질 나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엄마는 보리쌀과 된장을 싸면서 바삐 움직였어요.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자, 멀리에 있는 낮선 바다 얘기도 해 줬어요. 엄마는 완도, 부산 등등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대요. 이번에 울산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해산물을 딸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다짐했어요. 돈 벌어서 도랭이⁷⁵⁾도 사고 동생과 나를 대학까지 꼭 보낼 거라고요.

“엄마. 노를 저으려면 힘들지예?”

“노래를 부르면서 교대로 저으니 힘은 하영 안 든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자그마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울산 가서 돈 벌어다가 처마 느린 큰 집 사고”

엄마가 선창을 하면 나는 후렴으로 ‘이여싸’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노라면 나도 어느 새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흥이 났어요.

노래는 슬프면서도 굳센 의지가 느껴졌어요.

“밭머리 긴 큰 밭 사고 재미나게 살아보게”

73) 있어요

74) 이러면

75) 한쪽 귀통이에 있는 작은 땅

“이여씨”

“우리 진주 제법인 걸.”

“헤헤, 엄마를 닮아서 잘하죠?”

“흐흐”

“엄마, 처마 느린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응. 그 것은 큰 집이여.”

“아, 큰 집? 발머리 긴 발은?”

“발머리 긴 발은 길쭉하게 큰 발이고.”

“엄마 그럼, 우리도 큰 집이영 큰 발도 살 수 이서마썸?”

“그럼. 우리도 큰 집도 사곡 큰 발도 사야지!”

우리 식구들도 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작은 오막살이거든요. 지금은 할머니 병원비 걱정으로 힘들지만 나는, 엄마가 하는 말을 믿기로 했어요.

엄마가 떠나자 집안은 온통 텅 빈 들판처럼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영수가 낮잠 자는 시간에 갯가로 나가 파래도 뜯고 조갱이⁷⁶⁾도 잡았습니다.

“파래가 연하고, 조갱이도 하영 잡았구나.”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갱이 국 끓이쿠다⁷⁷⁾.”

“영수가 좋아 허켜⁷⁸⁾!”

“헤헤.”

국은 엄마가 끓인 것처럼 맛은 없어도 할머니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손도 야물고 우리 진주 무엇이 될 건고?”

“나는 할머니처럼 물꾸럭도 잘 잡고, 엄마 같은 상군해녀가 될 거예요!”

고모가 오는 날은 바다로 자맥질⁷⁹⁾ 연습하러 나갑니다. 엄마가 오기 전

76) 조개

77) 끓이겠어요

78) 할 것이다

79)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려 뒀다 잠겼다 하는 일

에 연습을 많이 해 봐야 하니까요.

얇은 물에서 풍덩거리며 수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흑, 객객…….”

한 번 잠수하고 나올 때마다 객객거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꿈에서
는 거북이처럼 오래 잠수하곤 하는데요.

“호이, 호이.”

나도 엄마처럼 ‘호이, 호이’ 흉내를 내며 긴 숨을 내쉽니다. 한 참을 곤두
박질하다보니 온 몸에 기운이 썩 빠졌습니다.

갯가로 나와 뜨끈한 돌 위에 벌러덩 드러누워 하늘을 봅니다. 청명한 하
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이글거리고, 멀리서 들리는 해녀들이 내쉬는
숨비소리⁸⁰⁾가 귓전을 파고듭니다.

‘아, 우리 엄마도 지금 바다에서 물질을 하겠구나. 엄마!’

엄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길 빌며 엄마가 부르던 노래를 부릅
니다.

“광풍아 불 태면 불어라 요 노 짝이 꺾어질까

바람이 질까 누가 이기는가 하여 보자.”

엄마가 출가물질 떠난 후 할머니의 기력이 조금씩 회복 되었습니다. 수
술을 하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이 잠
들고 나면 다정하게 나를 부르곤 해요. 손을 꼭 잡고 예전에 물질하던 얘
기들을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한 살 더 많던, 열세 살 때부터 바다 일을 배웠다고 합
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바다에는 지금보다 미역이랑 전복이 더 많았
다고 했어요. 한 망사리 잡아와도 관가에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
다고 해요. 애쓰게 밭일과 바다일 가리지 않고 해도 근근이 먹고 살 정도였
대요.

엄마보다 더 많은 해녀노래를 알고 있는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80) 해녀(海女)가 바다 위로 떠올라 참던 숨을 휘파람같이 내쉬는 소리

불렀어요.

“할머니도 노를 잘 저언마썸?”

“그럼. 내가 노를 저으면⁸¹⁾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잘 나갔썸!”

“헤헤. 우리 할머니도 노 젓는 선수였구나!”

“노를 젓고 나갈 때는 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꿈도 많았썸!”

“할머니, 나도 크면 출가물질 같 거우다.”

“그럼, 우리 진주는 상군해녀가 될 거야.”

“할머니, 상군이 뭐예요?”

“응, 상군은 전복을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이라.”

“아! 우리 엄마처럼?”

“응, 너의 엄마처럼 메역이랑 전복이랑 많이 따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 나도 상군해녀가 될거마썸!”

“그렇고말고, 우리 진주는 아주 큰 상군이 될 거여.”

“할머니는 전복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안마시⁸²⁾?”

“아니, 바로 눈앞에 전복이 있어도 숨이 짧아 못할 때가 있썸.”

“아고, 애⁸³⁾ 아팠⁸⁴⁾ 어떻 헨마썸⁸⁵⁾!”

“그 걸 따려다가 놔두고 온 날은 몸살이 난다.”

“아! 저번에 할머니 몸살 났을 때.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전복을 놓쳐서 아픈 것이라고마썸!”

“오죽하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 자식 공부시킨다는 말이 이시커냐⁸⁶⁾?”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우파?”

“전복은 목숨 걸고 따야할 때가 있고, 그 힘들게 딴 전복을 팔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 시킨다는 말이다.”

81) 저으면

82) 잡았나요

83) 가슴

84) 아파서

85) 했나요

86) 있겠니

“그럼 바당이 저승이라는 말이우짜⁸⁷⁾?”

“아니, 그건 아니고 바다가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거여!”

“아, 이제 알아지쿠다⁸⁸⁾.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당에서 돈을 벌어, 우리 먹여 살리고 공부도 시킨다는 것이지 예?”

할머니 말을 듣다보니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순간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엄마 걱정에 한 숨 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이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출가물질 가서 잠이 안 오면 친구들과 노래를 했대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해녀질 하면서도 고향 생각 어떠할꼬.”

노래를 듣다보니 엄마가 더욱 그리웠어요.

“엄마도 우리 생각 하영 헐건가⁸⁹⁾?”

“그럼. 출가물질 가면 고향생각, 아이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

“잠도 안 와마썸?”

“음, 어린 아기와 식구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할머니 얘기를 듣다보니 나도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돈을 벌어야 허니 참는 거여!”

나는 자꾸 또 바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다 넓디넓은 바다에는 전복도 영금영금 기어 다니고, 미역도 너울너울, 내가 상상하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언제 고모가 오려는지, 고모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얼마나 더 숨을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할머니도 엄마처럼 도령이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87) 말인가요

88) 알겠어요

89) 할까요

는 다치기 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저 밭 보엿시냐⁹⁰⁾? 꼭 끝이 저만큼인 큰 밭으로 살 거여!’

네, 할머니. 꼭 사게마썸!’

할머니가 가리키는 밭을 보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양지 바른 난간에서 잠든 영수의 신발을 벗기는데, 할머니는 문득 옛일이 생각난 듯 구슬픈 노랫가락을 뽑아내어 정적을 깨웁니다.

나는 일부러 할머니 노래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는 울먹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더니 고모가 와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주로 농사를 짓는 고모는 비가 오는 날이면 모처럼 휴일이라고 해요.

“우리 진주 착하지, 이레⁹¹⁾ 오라.”

고모는 머리를 빗기고 예쁜 머리띠로 앞머리를 올려 주었습니다.

“진주는 곱기도 하구나. 꼭 오라방⁹²⁾을 닮았쎄!”

“클수록 더 아방 닮아 감쎄⁹³⁾.”

할머니와 고모는 한참 동안 아빠 얘기를 하면서 훌쩍거렸습니다.

“배를 사지 말라고 경 말려신디⁹⁴⁾...”

“경허난⁹⁵⁾ 마썸! 아버지도 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집을 누게가⁹⁶⁾ 이길 거고⁹⁷⁾!”

“알면서 왜 자꾸 아지망⁹⁸⁾ 탓만 험수파?”

90) 보이냐

91) 이리로

92) 오라버니

93) 간다

94) 말렸는데

95) 그러니까

96) 누가

97) 것이냐

98) 아주머니(올케를 이룰 때도 씬)

“.....”

두 분이 아빠의 사고에 대해 언급하자 나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분명히 들었어요. 아빠의 사고가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고모의 주장은 분명했어요.

나는 집 뒤로 나가 큰 숨을 내 쉬고 툇마루에 기대어 할머니와 고모의 얘기를 숨죽이며 마저 들었어요.

“그 때 그 밭 사시민⁹⁹⁾ 아방도 살고 밭도 남을 거 아니냐!”

“.....”

“어떻게 마음이 약해서 아방도 잃었찌!”

“그건 억지우다.”

“.....”

“그게 어떤 돈이우짜. 아지망이 시집오기 전부터 모은 돈이고 예!”

“.....”

“밭을 살거라면서 들땡¹⁰⁰⁾ 이서신디¹⁰¹⁾ 아지망은 그 날,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수가?”

“.....”

“오라방이 아지망 모르게 돈을 훔쳐서 배를 샀고 예! 아지망도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이우다, 생트집 잡지 맙써!”

“.....”

“생각해 봅써¹⁰²⁾! 이번에 물질은 무사¹⁰³⁾ 갔수가?”

“.....”

“시어멍 수술비 벌려고 가신디 경 우기민¹⁰⁴⁾ 죄 받아마썸!”

단호한 고모의 말에 할머니는 울고, 나중에는 고모도 울고, 그 광경을 지

99) 샀으면

100) 들땡

101) 있었는데

102) 보세요

103) 왜

104) 고집 부리면

켜보며 나와 영수도 흘쩍이며 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모가 다녀간 후 할머니는 밤새 잠을 못 이뤘나봅니다.

“할머니 오리 알 넣고 죽 끓였수다, 혼저¹⁰⁵⁾ 먹읍써.”

“음, 너희들 먼저 먹으라.”

“네 할머니. 이땅¹⁰⁶⁾ 꼭 먹읍써예!”

오늘은 동생과 약속한 날이에요. 영수와 나는 엄마가 다니던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나는 영수와 함께 갯가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없는 바다는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주르르 불을 타고 내립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끝! 수평선에는 그림 같은 배들이 보입니다.

“영수야, 저기 큰 배 보여?”

둘이는 똑 같이, 손가락으로 큰 배 방향을 향해 가리켰어요. 마치 엄마를 본 것처럼 영수와 나는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으으 어! 어! ……”

“영수야. 이제 열 밤만 자민 엄마가 올 거여!”

엄마가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니 자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수야, 여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 딱 열 번만 연습하고 오켜¹⁰⁷⁾!”

영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떡이며 걱정 말라는 듯이 손으로 돌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잘 보라이!”

“으으. 히히.”

하얀 이를 드러내고 헤벌쭙하게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하나 둘, 꼽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응. 경 손가락으로 세어야 해. 하나, 둘, 셋 하고이!”

105) 어서
106) 이따가
107) 오마

“으으,”

나는 옷을 훌랑 벗어던지고 바다로 달려갑니다.

“영수야. 시작!”

‘퐁딩! 퐁딩!’

물속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나도 손가락 꼬으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니 도저히 더 이상은 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더! 팔과 다리를 퍼덕이며 숨을 참아보려고 애씁니다.

“푸우, 썩, 썩…….’

노력에도 불과하고 기어이 하나를 더 세지 못한 채, 또 짠 물만 먹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영수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킬킬거리고 있습니다.

“영수야, 이번은 마지막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숨이 막히는 그 순간까지 물속에서 버티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푸우 썩썩, 영수야 드디어 성공! 열하나까지 숨을 참았다, 맞지?”

“으으.”

영수는 손가락으로 열하고 하나를 펴서 소리쳤습니다.

갯가로 나와 영수와 돌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영수야, 상군해녀가 되려면 서른 번도 더 숨을 참아야 헌댄¹⁰⁸⁾ 햄찌!”

“으으.”

“나도 거북이처럼 숨을 오래 참아사 헌다! 그래야 깊은 바당에 가서 진주가 달린 전복을 찾을 수 있어!”

영수도 신이 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꼭 그날이 올 거여!”

108) 한다고

영수의 손을 꼭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큰 발 사고 큰 집도 사꼭 허게 이!”

“으으으.”

영수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입을 크게 벌려 웃습니다.

나는 영수를 잡아끌고 어디론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쿵쿵’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한숨에 할망당 앞에 다다랐습니다. 무작정 달려온 목적지가 할망당이라니! 나도 순간 멍칫 놀랐습니다.

“허허(헉헉). 누 누(누나, 누나).”

나는 영수가 숨차게 부르는 소리도 뒤로 하고 헉헉거리며 할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영수도 옆에 가지런히 앉았습니다. 영수와 나는 한참 거친 숨을 몰아 쉰 다음 엄마처럼 두 눈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어느 날 엄마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수와 나는 맨발로 달려갑니다.

“할머니 이제 잘 걸음수다¹⁰⁹⁾예?”

우리의 손을 잡으며 엄마는 말했어요.

“응. 조금만 더 치료 받으면 된다고 햄져.”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한 숨 돌리는가 했더니 영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영수를 데리고 시내 병원에 다녀 온 엄마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영수와 병원에 한 달이면 한 번이나 겨우 두 번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영수 병원에 가는 날이우다.”¹¹⁰⁾

“응. 오늘은 바빠¹¹¹⁾ 못 가켜!”

나는 엄마가 병원 안 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빛이 남아있고

109) 걸으십니다

110) 날입니다

111) 바빠서

때때로 할머니 약도 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영수 치료는 포기하는 단계라는 것어요.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오자 엄마는 출가물질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나도 따라 가쿠다¹¹²⁾!”

“너는 아직 어려서 물질을 못 한다.”

“쌀물 때면 조갱이랑 소라도 잡고 메역도 켈 수 있다고 들었수다!”

“누가 경 고라니¹¹³⁾?”

“음. 영숙이 어명신디 들언마썸!”

“너는 학교도 가야하고 아직 할머니도 성치 않으니…….”

“영숙이는 아기엽게¹¹⁴⁾로 데리고 간다고 험디다.”

“돌도 안 된 아기도 같이?”

“네. 영숙이도 좋아 험수다.”

“소까지 팔더니 형편이 안 좋은 모양이!”

할머니는 후유증으로 바다에는 못 가도 집안일과 영수 돌보는 일은 기꺼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내가 휴학까지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니, 네 뜻이 정 그리하면 여름 방학에 올라오라고 하면서 먼저 떠났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기다리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이면 낯선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로 늦은 밤까지 멀뚱거리다 한참 만에 잠이 든 나는 또 꿈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는 소라가 우글거리는 바다에서 우리 집에 행운을 갖다 줄 전복을 막 찾았는데 할머니가 깨우고 말았어요.

“할머니, 내 전복은요?”

“잉? 또 꿈을 꺾시냐¹¹⁵⁾?”

112) 가졌어요

113) 말 했니

114) 애기 보는 사람

‘전복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눈을 감은 채 옷을 입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상상하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머니가 삶아 준 오리 알과 방학 숙제 거리를 등에 동여매고, 동이 터 오르는 축항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115) 꾸었냐

VI. 결 론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해서 가정과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왔던 제주 해녀들에게 물질은 생업이며 전문적인 직업군이다. 잦은 풍랑과 거친 환경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며 살았던 해녀들은 바다에서 절규하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또 다른 개척의 현장으로 출가물질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은 노동요를 통하여 삶과 의식 속에서의 고통과 한을 토해내었으며, 때론 가족의 안위와 희망을 노래하였다.

제주해녀들은 역사 속에 깃든 조냥 정신과 의지적인 자립정신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해녀 노동요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상호간 협력하며 살아 온 해녀의 고유한 가치이자 큰 자산이다. 이를 통하여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본받을만한 가치가 크다.

지금은 고령화로 인한 해녀 감소와 작업환경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해녀 노동요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라져가는 해녀 노동요를 현장에서 불리고 명맥(命脈)을 유지한다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시류에 맡기고 전승 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녀 노동요는 옛 조상들의 문화로, 곧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 것이다.

최근 들어 해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주도 당국에서도 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해녀 노동요 전승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도 해녀들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맥(脈)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노동요 전승을 위해서 기능 보유자들에게 의한 후배 양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편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해녀축제에서는 해녀문화를 재현하는 갖가지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구되어야 할 이 사회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며 개개인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해녀들의 자연 생태적이고 상호적인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해녀 사회가 일궈 낸 가치를 되새기며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통방식의 재현으로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문화원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제주해녀 노동요는 발동선이 생긴 1970년대 이후 노동환경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그 시절 제주의 바다에는 어디를 가나 해녀 노동요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해녀 고령화로 인하여 해녀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녀문화유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와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필연적인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여러 해에 걸친 노력의 산물(産物)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면서 제주해녀가 지구상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해녀문화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해양문화의 장을 열었고, 해녀 노동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는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해녀 노동요를 모티브로 한 문학이나 여러 방면으로 스토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상품화로 해녀 사상(史上)을 모티브로 하는 공모전이나, 지속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주해녀 노동요를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동화를 창작하였다. 동화에서는 난해한 노동요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내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간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제주해녀 노동요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스토리텔링으로 해녀와 어린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녀 노동요를 활용한 동화 스토리텔링은 노동요의 가사를 소재로 한 허구의 이야기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탄생된 동화는 독자들에게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며 제주해녀의 특성과 가치를 부여함은 물론 교육, 문화산업으로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해녀 노동요를 토대로 한 동화 스토리텔링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해녀문화 교재활용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해녀들의 정체성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재정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방편으로 제주 농요에서 잘 알려진 ‘맷돌·방아노래’나 어업 노동요인 ‘멀치후리는 소리’ 등으로 확대해서, 교육대상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과 각 학년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체성 함양을 위해 교육적 소재를 풍부하게 다룬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돈 (2002), 『제주도 민요연구(上, 자료편)』. 민속원.
- 김영돈 (2001), 『제주도 민요연구(下, 이론편)』. 민속원.
- 변성구 (2007),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5, 민속원.
- 양영자 (2007),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6, 민속원.
- 이금이 (2006), 『동화 창작 교실』, 푸른책들.
- 좌혜경·권미선(2009), 『濟州海女史料集』,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좌혜경·권미선(2010), 『제주해녀의 노래(이여 이여 이여도사나)』, 제주특별
자치도 해녀박물관.
- 한교경 (2013),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보고서》

- 양영자 (2002), 「제주 민요의 표현 특질 考」, 제주도 연구 22집.
- 변성구 (2002), 「濟州島 民謠 研究의 成果와 課題」, 제주도 연구 22집.
- 좌혜경·권미선(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집.
- 최병길·권귀숙 외 (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연구
15집.

《학위논문》

- 강은심 (2013), 「주제 중심의 제주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미정 (2012),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석
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소영 (2010), 「일월오봉도의 상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 석사학위

- 논문, 국민대학교.
- 김수정 (2008),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 김정숙 (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진철 (2015),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향희 (2013), 「제주도 토속민요의 전승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혜영 (2002), 「빠로동화 속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박정희 (2004),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심서희 (2016), 「동화 〈나무도령〉의 설화 다시쓰기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안수연 (2010), 「‘오세암’서사의 스토리텔링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양순자 (1997), 「海女노래 辭說에 드러난 海女の 經濟活動과 海女노래 傳承方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오어진 (2012), 「제주 해양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윤혜원 (2016), 「제주 산방산 설화를 활용한 그림책 스토리텔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선화 (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은심 (2010),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의 구현 양상과 의미」,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정숙 (2000), 「마해송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정훈 (2012),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 자원 아카이브즈 구축 방안 연

- 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주홍 (2007), 「이주홍 동화의 창작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조정아 (2005),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구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채지순 (2009), 「패러디 동화에 나타난 서사 구성 요소 변화와 주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문선 (1999), 「그림(grimm) 동화의 여성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한대규 (2006), 「아이 주인공 전래동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한미연 (2004), 「패러디를 통한 문학의 수용과 창작」,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황선미 (2005), 「동화 창작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웹사이트》

- 동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F%99%ED%99%94>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culture/folklore/samda/women/diverWomen.htm>
- ‘인턴해녀’, https://story.kakao.com/_kAeIy7/fDS86G3Yw6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6904>
- 한수플해녀학교 다음백과, <http://100.daum.net>
-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aenyeo.go.kr>
- 해녀 수 유지를 위한 노력,
http://jejuivyhotel.com/iboard/bbs/board.php?bo_table=jejuivy_story&wr_id=10308&page=6
- 해녀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B%85%80>

